제43회 대통령기 양궁대회 결승경기가 29일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결승은 오는 9월 광주에서 개최될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실제 경기 운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민주광장서 활시위…세계양궁선수권 '테스트'

제43회 대통령기 양궁대회 광주·전남 선수들 '저력 증명' 오늘 국가대표와 이벤트 경기

광주·전남 선수들이 대통령기 양궁대회에서 금빛 활시위를 당기며 저력을 증명해 보였다.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광주에서 열린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에서 광주·전남 선수들이 활약했다.

29일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된 리커브 여자대학부 개인 결승전에서 광주여대 오예진은 순천대 탁해윤과의 맞대결 끝에 세트스코어 6-4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예진은 1세트(29-27)와 2세트(29-27)를 먼저 따내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이후 3세트(28-30)와 4세트(27-28)에서 탁해윤에 점수를 내줬으나 29-25로 마지막 5세트를 따내며 1위에 올랐다.

오예진은 이번 대회 예선전에서 30m 금메달, 50m와 60m, 70m에서 은메달을 얻어내며 종합 1위로 결승에 진출했다.

앞서 오예진은 지난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70m와 3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에 오른 바 있다.

여자대학부 단체전에서는 오예진·남가형·이수연·한유진(이하 광주여대)이 팀을 이뤄 결승에 진출했으나 한국체대에 4-6으로 지면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최미선(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은 여자일반부 개인전 4강에서 전훈영(인천시청)에게 패하며 동메달에 그쳤다.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는 김수린·김채윤·이가영·전완서(이하 광주시청)가 동메달을 추가하며 메달 흐름을 이어갔다.

여고부에서는 순천여고 조한이가 6-2(28-28, 29-28, 30-29, 27-27)로 강은지(경남체고)를 무찌르고 금메달을 얻어냈다.

특히 광주는 이번 대회에서 컴파운드 첫 전국대회 메달 수확이라는 성과를 안았다.

광주체고 신정우는 이번 대회 4강에서 황성욱(143-141)을 무찌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신정우는 김강민(인천 영선고)과 접전 끝에 140-143으로 패했지만 전국대회 첫 광주 컴파운드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번 대회는 리커브·컴파운드 개인·단체 결승전과 시상식이 오월 광주의 역사가 담긴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이 5·18 민주광장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테스트 경기 차 진행된 것이다. 복원작업이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과 상무관 사이에 사수대와 과녁, 천막 등 구조물이 설치됐다.

30일 5·18 민주광장에서는 대통령기 대회 우승자와 국가대표가 활시위를 겨루는 이벤트 매치가 열린다.

이날 5·18 민주광장에는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리커브·컴파운드 선수들이 총출동한다.

리커브는 김우진·이우석·김제덕, 임시현·안산·강채영이, 컴파운드는 최용희·김종호·최은규, 소채원·심수인·한승연이 참여한다.

오전 10시 컴파운드 여자단체전 경기를 시작으로 오후 1시40분에는 리커브 여자단체전과 우승팀이 맞대결에 나선다. 리커브 남자단체전은 오후 2시 6분부터, 리커브 혼성단체전은 오후 2시 32분부터 열린다. 리커브 여자개인전과 남자개인전은 각각 오후 3시 10분, 오후 3시 22분에 만나볼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안양전 패배는 없다' 광주FC 5위로 '점프'

K리그1 21라운드 2-1 승 신창무·아사니 '1골 1도움'

광주FC가 안양전 무패 행진을 잇고 5위로 올라섰다.

광주FC가 28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C안양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21라운드 경기에서 신창무와 아사니의 '1골 1도움' 활약으로 2-1 승리를 거뒀다.

광주는 이날 승리로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안양전 무패행진을 '7경기'로 연장했다.

전반 9분 신창무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 김다솔에게 막혔지만, 아쉬움은 잠시였다.

전반 11분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몰고 박스로 진입한 아사니가 왼발 슈팅을 시도하는 대신 뒤에서 달려오던 신창무에게 공을 넘겼다. 신창무가 침착하게 왼발로 공을 때리면서 시원하게 안양 골대를 갈랐다. 올 시즌 8번째 출전 경기에서 기록된 신창무의 첫 골이다.

28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광주FC와 FC안양 경기에서 광주FC 신창무(오른쪽 두번째)가 득점한 뒤 동료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제공〉

상대 허를 찌르면서 도움을 기록한 아사니는 전반 37분, 골 주인공도 됐다.

이번에는 신창무가 아사니의 골을 도왔다.

왼쪽에서 공을 가지고 있던 신창무가 반대쪽으로 크로스를 올렸다. 중앙에서 상대와 경합하고 있던 정지훈이 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공을 흘렸다.

오른쪽에서 상대의 견제를 받고 있지 않았던 아사니가 공을 잡아 왼발 슈팅을 날리면서 2-0을 만들었다.

앞선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홈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던 아사니는 다시 한번 골과 도움을 나란히 수확했다

광주는 전반 41분 채현우의 왼발 슈팅에 실점을 기록했다.

2-1로 쫓긴 광주는 추가골 사냥에는 실패했지만 상대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승리는 내주지 않았다.

전반 추가시간 광주 진영에서 전개된 볼 경합 과정에서 안양 마테우스가 최경록의 허벅지를 발로 가격하면서 비디오 판독 결과 레드 카드를 받았다.

광주는 이날 승리로 2025 FIFA 클럽월드컵 조별리그 일정을 소화하느라 두 경기를 덜 치른 울산 HD를 밀어내고 5위에 자리했다.

광주는 8승 7무 6패로 승점 32를 만들었고, 울산은 8승 5무 6패로 승점 29를 기록하고 있다.

리그에서 순위 싸움 중인 광주와 울산은 코리아컵에서 격돌한다. 두 팀은 7월 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코리아컵 준결승 티켓을 놓고 다툰다.

이 경기 이후 A매치 휴식기에 돌입하는 광주는 7월 18일 수원FC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리그 일정을 재개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동아시안컵 앞둔 여축구대표팀 '악재'

주축 스트라이커 최유리·수비수 김진희 부상 이탈

여자 축구대표팀 스트라이커 최유리(버밍엄시티)의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출격이 부상에 불발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최유리와 수비수 김진희(경주한수원)가 다쳐 이들 대신 공격수 현슬기(경주한수원)와 수비수 맹다희(화천KSPO)를 발탁한다고 29일 밝혔다.

최유리는 오른쪽 대퇴부, 김진희는 왼쪽 무릎을 다쳤다.

A매치 67경기에서 13골을 올린 주축 스트라이커 최유리의 낙마는 신상우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에 작지 않은 악재다.

맹다희는 이번이 대표팀 첫 발탁이다.

이날 강원 원주에서 소집되는 신상우호는 7월 9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중국과 동아시안컵 1차전을 치르고 13일 오후 8시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일본과 대결한다.

이어 16일 오후 7시 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대만과 최종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올스타전 홈런 더비 참가 선수 뽑아주세요

7월 1일부터 팬 투표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 홈런 더비 참가 선수를 뽑는 팬 투표가 7월 1일 시작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9일 "이번 컴투스 프로야구 홈런 더비 참가 선수는 100% 팬 투표로 선정한다"며 "투표는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7월 3일 오전 10시까지 KBO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후보는 올스타전 출전 자격을 얻은 선수 중 29일 경기까지 10개 이상 홈런을 기록한 전원이다.

올해 홈런 더비 방식은 소폭 변경됐다.

기존 아웃제 방식에 시간제 방식을 더해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유도한다.

지난해엔 예선 7아웃, 결승 10아웃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홈런을 기록한 선수가 우승했으나 올해부터는 제한 시간 2분이 추가된다.

아웃 카운트 규정은 병행 적용되며 예선과 결승에서 각각 1회씩 최대 30초의 타임을 요청할 수 있다.

홈런 더비는 7월 11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리는 퓨처스(2군) 올스타전 이후 열리고 7월 12일엔 같은 장소에서 올스타전이 펼쳐진다.

KBO는 이번 올스타전의 테마를 '올 포 베이스볼'(All for baseball·야구를 위한 모든 것)로 정했다.

아울러 대전의 명물인 빵과 엑스포, 홈 팀 한화 이글스의 상징인 불꽃놀이 등을 형상화해 올스타전 메시지를 시각화하는 '키 비주얼'을 만들었다.

지난해 신설한 퓨처스 올스타전 베스트 퍼포먼스상은 올해도 시상한다.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를 펼친 수상자는 상금 100만원과 부상을 받는다.

/연합뉴스